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천리마타일공장과 천지윤활유공장,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천리마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주내에 새로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필요한 건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자면 공장에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취된 영웅적투쟁정신이 나래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땅에 자리잡고있는 공장의 이름을 천리마타일공장으로 명명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접착제직장, 타일생산직장, 수자식천연색분무인쇄실, 타일전시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새제품개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레년에 없이 높아진 올해 타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애국의 땀을 바쳐가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공장은 세계적인 경제과동에도 끄떡없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애국공장, 불수록 멋있고 쓸모있는 공장이라고 대단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으며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천리마타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은 공장의 로동계급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투쟁기풍과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기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천지윤활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연혁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흑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인민정

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윤활유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공장리전도 몸소 잡아주시였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윤활유공업을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공장을 종합적인 윤활제생산기지로 현대화하는 사업도 걸음걸음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천지윤활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 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분석실, 종합생산지령실, 윤활유작업반, 그리스작업반, 사출작업반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들의 기술적특성과 제품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수자화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립도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특히 종업원 일인당 복지면적이 세계적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있는데 대단하다고, 기업소가 그대로 공원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이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료와 첨가제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

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정책이 공장의 구석구석마다에서 정확히 관철되고있는 천지윤활유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자기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 이 공장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크게 소개선전하여 모두가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내세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일군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정책을 자자구구 깊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는 지배인 계층과 공장일군들에게 현지에서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이라는 명칭에는 백두산천지물처럼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우리 당을 받들려는 공장로동계급의 마음이 어려있다고 하시면서 높은 생산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천으로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고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양말공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은 특별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너자양말직장, 남자양말직장, 견본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양말공장에 조성된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양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양말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해당 단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양말에 대한 요구는 계절과 추세, 연령, 성별에 따라 각이한것만큼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머리를 싸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제품의 실용성과 미적가치를 보장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양말도안을 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기술준비와 제품생산, 포장, 판매에 이르는 모든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서 평양양말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시기자





# 철령이 전하는 사연

철령이라고 하면 예로부터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로 아흔아홉굽이 다 된다는 험한 산세로 알려져 있다.

이곳 지형이 얼마나 험하였으면 옛 사람들이 《신령도 손바닥만 쓸면서 뒤걸음질친다.》라고 하였는가.

하기에 철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사요충지로 되어왔다.

고려의 학자였던 리극은 기행시 《회양 철령》에서 이렇게 썼다.

《철령은 나라의 동쪽 요해지로서 이른바 장부 한명이 관문을 지키면 만명의 군사들도 열지 못한다는 곳이다.》

이처럼 높고 험한 천연요새로 알려졌던 철령이 오늘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선군정도의 상징으로 세상이 다 아는 철령으로 되었다.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철령을 넘고 또 넘으시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었기 때문이다.

철령이라는 이름만 불러보아도 그이께서 헤쳐가신 선군길이 안겨오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불같이 사신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와 눈시울을 적시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조국안에 드리운 시련과 난관을 선군의 보검으로 지켜주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령을 비가 내려도 넘으시었고 눈을 맞으면서도 넘으시었으며 밤에도 넘고 새벽에도 넘으셨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험한 철

령길을 뚫으셨다. 최고사령관이 전진길을 알지 못하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나에게서 철령졸업증이란 있을수 없다. 나의 철령행진선길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그토록 바라던 《철령졸업증》을 끝끝내 받지 않으신채 선군장정의 머나먼 길을 걸고 또 걸으신 장군님이시었다.

이 나라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장군님 사생결단의 의지로 넘

고향집생각보다 먼저 최고사령관을 더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고있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나에게서 철령졸업증이란 있을수 없다. 나의 철령행진선길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나라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장군님 사생결단의 의지로 넘

은신 이 철령이 있어 침략의 불구름 철령을 넘어오지 못했거니

이 령을 넘어 돌아오실 때에는 우리 장군님 평화로운 인민의 웃음소리 안고 오셨어라 자주적삶을 누려가는 행복한 인민의 날과 날은 나라에 넘치게 안고 오셨어라

정녕 장군님께서 온갖 고생 다 하시며 넘고넘으신 철령의 험한 령길들이 있어 오늘 공화국은 불매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존엄떨치

며 이 땅위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안아오고있는 것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찌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고산파수농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2 000여정보의 드넓은 땅에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던 그이께서는 얼마나 보기 좋소, 철령아래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피어나고있소, 아아 시인들이 이곳에서 서면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하시며 팔로데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발자취가 굵이 굵이 어려있는 철령아래에 대구

모파수농장이 건설된것은 그의 미가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세계 굴지의 청춘관원으로 일신된 고산파수농장의 력사의 첫째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무려 18차레나 넘으신 철령, 그 아래 아득히 펼쳐진 사파바다,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강성국가건설도, 인민의 력원도 오직 강력한 군력으로만 담보될수 있고 그 억척력야테서만 지켜질수 있다는 승리와 번영의 철리를 온 세계에 가르쳐주는 조선의 현실이다.

철령은 오늘도 길이 전하고 있다.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 찬란할 변영과 미래도 선군이 있어 영원히 담보되고 지켜진다는 것을...

본사기자 김강철



위대한 령장의 선군장정으로 빛나는 철령



철령아래 펼쳐진 대규모의 고산파수농장

## 잊지 못할 8월의 화폭이 새겨주는 철리

대동강변을 따라 평양의 련광정이며 모란봉의 울림대근처는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들은 추녀들린 정각의 마루며 기둥 하나하나를 무시히 대하지 않고있다. 그럴만도 하다. 근 70년전 8월의 사변이 그대로 스며여있는듯싶은것이다. 당시 조국해방으로 온 겨레가 만일 가슴 부풀 때 평양 시민들은 바로 여기서 총일출판을 벌려놓았다는것이 우리의 활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추억담이다.

1945년 8월 이 강도는 말 그대로 감격의 열파로 진동하였다.

평양에서 총판이 벌여질 때 서울에서는 러운형, 허현, 홍명희 등 명망가들이 김일성장군을 환영준비위원회를 내었고 서울역은 수천수만의 시민들매일같이 인사인해를 이루고있었다. 그들속에는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김동진도 있었다. (그는 후날 조선전쟁이 한창일 때 북으로 왔다.) 그의 회상에 의하면 세상물정을 알기 시작한 대동강학업교시절부터 축지법으로 왜놈군대를 위락파라하시며 쳐갈기신다는 수백명도 넘는 서울장안에 송파하게 그는 김일성장군님이 서울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학

우들과 함께 서울역광장으로 출달을했다고 하였다. 군중의 머리우에서 펴터리는 수많은 환영프랑카드들과 곳곳에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담, 무훈담을 띄우며 밤을 지새우던 서울시민들의 모습 이 늘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민들이 펼쳐나 서운역앞에 큼직하게 세운 솔대문에 장정원에서 소담한 술가지를 쥘마다 성의껏 쏘았던 거였다. 기나긴 암흑의 밤과 지루한 노예살이를 끝장낸 우리 민족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여 목청껏 만세를 터치었다. 목격과 환희의 눈물을 머금고 목매어 울고우는 겨레의 마을마다에 추켜오른 소중환 감정은 다시 찾은 민족의 력사의 자기 운명에 대한 귀중함이었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스무해세월을 바쳐야 했던 그때를 더듬으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망국은 순간이요 북국은 천년이라는것이 항일혁명 10년의 로정을 걸으면서 얻은 하나의 교훈이었다고, 그것은 잃기는 힘들어도 찾기는 힘든지요 바로 조국이라는 뜻이라고,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고 싶었다는 수백년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라고 하시었다.

력사를 소급해보면 알수 있다. 인디아가 영국의 발밑에 있다 200여년만에 멩에 버섯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300여년, 알제리는 130여년, 스리랑카는 150여년 그리고 웰남은 근 100년만에야 독립을 보았다. 약 소민족이 세대를 이으며 치른 망국의 대가는 이렇게 큰 것이다.

40여년세월 조선땅을 짓밟고 조선민족을 노예화한 일제의 지배는 강탈과 파괴, 살륙만행에 있어서 동서고금 그 어느 파썸세력의 포악성과 야수성, 파렴치성을 통가하는 전대미문의 민족말살통치였다. 영국 런던총합대학의 한 교수가 일본의 지배주의정책으로 1920년대부터 조선사람들의 키가 작아지기 시작했다고 한것만 봐도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칭송하여 세워진 모란꽃시공의 개시문이 전하는 것처럼 조국해방은 10대의 시절에 애국의 길에 나서시어 존경하는 부모님들을 이국의 거지촌 산야에 물으시고 사랑하는 동생분들과 생리별하지 않았던 안되는 그모진 슬픔과 피로움도 지인들의 뜻과 힘으로 이겨내시며 오로지 애국위업에 한 몸을 기꺼이 내대신 것이

본사기자 리 설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토론회

### 영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토론회가 선군철에 즈음하여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영국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조선친선협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4돌이 되는 8월 25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날이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군위 서울류경주105당코사단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때로부터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군대 구조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사명파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뜻박이 사기하시고 권익은 자연재해와 계급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으로 나라가 최악의 시련을 겪던 지난 세기말의 시련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 밑에 조선에서는 혁명적인 정신이 창조되었다. 사회적으로 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위업을 받들어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뿐 아니라 군대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서도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영국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서 가장 중요한것

은 강력한 전쟁역력을 마련하신것이다. 조선은 미국이 갖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역력과 미국 본토까지 정밀타격할수 있는 수단들을 보유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영국 런던총합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얼마전 대학으로부터 조선의 지도사상에 대하여 강의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들에게 조선의 선군정체에 대하여 강의할 기회가 차례진다면 나는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체를 받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인민군이 창조한 사상정신적재부와 기념비적 창조물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알려줄것이다.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체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는것은 나의 의무이다. 본사기자

## 항 일 대 전 의 나 날 에

### 리치백로인과 전민항전론

주제22(1933년 가을 소왕청유격구에는 5 000여명의 일제의 대병력이 달려들었다. 항일유격대는 2개 중대의 인원뿐이었다. 온 유격구가 김일성장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수령님께서 리치백로인의 권유로 그의 집으로 가셨고 그날 밤 로인과 잠자리를 같이하게 되시었다. 시간은 가는 데 웬일인지 로인은 내치 한숨만 쉬며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불깃을 찌며 그에게 왜 잠밖한숨만 쉬는가 물으시었다. 그리자 로인은 적들이 유격구문밖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있는데 배포유하게 잠을 잘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래서 자신께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고는 그에게 어쩌면 좋겠는가, 적은 수천명이나 되는데 소양창을 지키는 우리 근대는 적의 1/100이나 되나마 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하시었다. 말없이 담배를 피우며 한동안 기척이 없던 그는 격한 어조로 병졸이 부족하면 자기도 대장의 부하가 되겠다고, 모두가 싸움군

이 돼서 너 죽고 나 죽고 해 불판이라고 하였다. 로인의 말을 들으시는 수령님의 사색의 세계에 번개처럼 섬광이 번쩍 일었다. 적의 력량상대비에서 오는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새로운 발전의 실마리를 포착하신것이였다. 이런 인민들을 불러일으킨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리치백 같은 로인들, 그의 사위 김

중권 같은 청년들, 유격구의 남녀로소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어야 한다. 전민항전만이 승리의 출로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구상에 따라 유격대뿐 아니라 유격구의 전민을 부위전에 불러일으키시었고 전민항전으로 100배의 적을 타승한 기적이 창조되었다. 전민항전은 수령님의 인민적인 사색과 탐구의 고귀한 열매의 착화신것이였다. 이런 인민들을 불러일으킨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리치백 같은 로인들, 그의 사위 김

마을에 들리시었다. 마을사람들은 그이께 조선이 언제쯤 독립되는가고 말씀했었다. 그들에게 복잡한 세계정세와 파시즘멸망의 불가피성, 항일유격대의 전과도 알려주신 수령님께서서는 확신에 넘치시어 앞으로 3~4년간 더 참고 기다라라고, 그러면 꼭 광명한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었다.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신대기 초한 과학적인 예언이었고 또 기어이 그렇게 하고야말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진 말씀이였다. 그때로부터 마을사람들은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3년째 되는 해에도 해방은 오지 않았다. 실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예언의 마지막 4년째 해인 1945년 8월 정말 일제가 대망하였다는 소식이 마을에 날아들었다. 수령님께서 마을을 다녀가신지 네해만에 조국이 해방되었던것이였다. 마을의 좌상로인이 사람에게들 앞에서 무릎을 치며 말했다. 《파시 우리 장군님은 그들이 낸분이 분명구나. 그렇지 않구사야 칠후일이 앞당기던 그 세월이 어떻게 오늘을 내다보실수 있던 말이고.》

본사기자 리 경 월

## 네 해 전 의 예 언

우리 나라가 언제엔 해방이 되겠는가. 파피거우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모여앉으면 저마다 별 이형제 추구하며 이야기를 주고받곤 하였다. 그런데 그즈음에 마을에 떠도는 소리는 다 불길한것들뿐이였다. 1941년 봄에는 쓰러리와 일본이 화전을 하였다는 말이 돌았고 여름에는 도이첼란드군대가 소련의 한 도시를 점령하고 그 다음날에는 또 어느 도시를 먹었다는 소식이 전하여졌다. 어느날이였다. 마을의 좌상로인은 한숨을 쉬며 흥흥한 소문을 듣고보면 아마 당대에 고향땅에 가기는 틀렸

다고 하였다. 한때 로씨야에 들어가 활동하다 마을에 와서 계몽활동을 하는 젊은이가 하는 말이 도이첼란드 가 땅크, 비행기로 무장한 170개 사단의 병력으로 쏘아편을 들어왔으니 모스크바도 열일 마 못가서 먹히우겨 될 것이고 세계에 유일한 사회주의국가가 없어지면 조선 독립은 힘이 들것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독립이 10년후에 되겠는지, 20년후에 되겠는지 하며 갑자르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소부대를 거느리고서 왕청일대에서 활동하시던 수령님께서 그

## 말복뒤에 오는 《후오복》

수천년을 두고 한갖 꿈으로만 남아있던 오복이 흥하는 선군시대에 와서 드디어 현실로 펼쳐지고 《후오복》이라는 새로운 말과 더불어 령도자가 인민에게 안겨주는 천기다. 만가지 행복도 더욱 뜻이 깊게 불리워지게 되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이 세상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2009년 삼한 고온현상이 지속된 그해 삼복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50일전투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며 여름철강행군을 끝없이 이어가시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아뢰이는 일군들에게 《나는 그날 밑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이야기도 그대에 있는 이야기이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초강도현지도, 축지법현지도들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속도가 그대로 강성국가건설속도, 비약하며 내달리는 조국의 대고전군속도가 되어 이 땅위에 흥성의 오복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펼쳐지게 되었던것이였다.

말복뒤에 오는 《후오복》! 참으로 이 말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헌신과 세계를 전하는 시대에서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삼복의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열과 정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

게 하여 파일항기가 넘쳐나고 과일도가 세차게 일어나도록 할대 대하여 말씀하시며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와 과일을 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현지생활유용장을 찾으시어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열정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주시던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준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서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현지생활유용장은 유복자공정이라고 하시며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들며 우리 인민들은 말복뒤에 《후오복》이 있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천만고생을 락으로 삼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되돌아보며 격정을 금치 못했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월











# 동해명승 송도원에 만발하는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

## 세 상 에 부 림 없 어 라

아름다운 동해의 기슭에 행복에 넘친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껏 넘친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에 세상에 자랑할만한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이 진행되었다.

예로부터 《백사청송》으로 불리워온 송도원, 마식령산줄기의 높고낮은 봉우리들과 여기에서 벌어내린 산발들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조선동해의 맑고 푸른 물결과 은보라 반짝이는 하얀 백사장, 푸른 소나무숲과 붉게 핀 해당화, 파도를 넘나드는 흰 갈매기들이 잘 조화되어 한쪽의 그림마냥 아름다운 바다가풍치를 이룬 이곳은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명승지로 되어왔다.

바로 이러한 곳에 아이들을 위한 야영소가 훌륭하게 일떠선것은 절세위인들의 승고한 후대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48(1959)년 6월 몸소 송도원소년단야영소의 터전을 잡아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여러차례나 야영소를 찾으시어 송도원의 제일 좋은 자리에 야영소를 지어준것은 잘한것이라고,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야영소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세심히 지도해주시었다.

어비수령님의 승고한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1985년 7월 이곳 야영소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명명해주시고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3년 3월에는 훌륭히 개관된공원 야영소를 찾아주시어 친어비어십점으로 아이들의 야영생활을 보살펴주시었다.

어비수령님께서 명당자리에 잡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주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으로 그 면모를 일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5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몸소 찾으시고 야영소를 훌륭히 개진하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야영소를 개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올해에만도 세차레나 야영소를 찾아주시고 세상에 이런 야영소가 없을것이라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더한 노래라고,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림없이 잘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세상에 부림없어라!》는 구조를 보시고 저 구조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왕으로 내세워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더한 노래라고,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림없이 잘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복받은 공화국의 어린이들만이 터칠수 있는 행복의 노래,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이다.

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더한 노래-《세상에 부림없어라!》의 글발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곳곳에 새겨져 빛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온 야영생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기는 나날을 보내고서서 누구나 같이 감동되었다.

고마움과 감동의 그 마음 애타란자니소년야영단의 야영생들은 매일 아침일찍 일어나 야영소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인사를 드리고 동상주변을 깨끗이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른 나라 소년야영단의 야영생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조선의 아이들을 정말 부림다고 찬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본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흥분된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송도원의 푸른 소나무를 북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세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고 싶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려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오라고...》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가 하늘 높이 울리는 곳,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곳이다.

글: 본사기자 김춘경  
사진: " 심용석



## 청신한 솔숲향기, 시원한 바다물이 안겨주는 즐거움



《야!-》 역시 여름은 아이들을 위한 계절이라는 말이 맞는듯싶다. 너도나도 신나게 소리를 치며 알다투어 바다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들의 친친란란한 웃음은 여름해살만큼이나 눈부시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의 즐거운 나날들중에서 아이들이 제일로 좋아하는것은 해수욕으로 보내는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해수욕은 8일간의 야영의 나날 매일 진행되는 일과이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

다바라파 모래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소나무를 옮겨심기 시작한 때로부터 송도원에는 솔밭이 생겼으며 19세기말~20세기초부터 해수욕장으로 리용되었다고 한다.

청신한 솔숲향기가 은은히 풍겨오는 송도원에서의 해수욕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독특한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해월에 한껏 달아오른 하얀 모래밭속에 푹푹 밟아 빠져들며 따가움을 느끼는 맛도 좋지만 푸른 바다물속에 침범 빠져는 순간의 상쾌감과 재미는 그 어디에 비길바 없는것이다.

야영 3일째 되는 7월 31일에는 야영생들이 모래로 모형을 만드는 경기도 있었다. 드넓은 백사장에서 서로마다 자기 나라 야영단의 영예를 떨치겠다고 열성을 다하여 모래로 각이한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야영생들의 모습은 불만 하였다.

로씨야소년야영단은 조선의 명산인 금강산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는가 하면 월남

그중에서도 이체를 뒀것은 재중동포소년야영단이 만든 어년 백두산모형이었다. 스무명남짓한 재중동포소년야영단의 야영생들은 한마음이 되어 모래로 웅장한 백두산의 모습을 방불하게 형상해냈다.

재중동포소년야영단의 김경자선생이 자기가 가져온 백분으로 산정점들을 하얗게 만들어 마치 백설을 인 백두산의 실지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우리는 백두산하늘아래 산다는 긍지를 안고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재중동포소년야영단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김진영학생이 하는 말이였다.

모래로 모형만들기경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또다시 바다에 뛰어든다. 들어다보면 모래알갱이를 셀수 있을 정도로 맑은 송도원의 바다물은 행복에 겨워하는 아이들을 시원하게 안아준다.

시간이 흐를수록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해수욕장에 넘치는 아이들의 기쁨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높아간다.



맑디맑은 바다물에서 누가 수영을 잘하는가 내기를 하는 총각애들이 있는가 하면 품디고운 모래밭에서 조가비를 쫓느라 여념이 없는 처녀애들의 모습도 보인다.

## 바다처럼 넓고넓은 조국의 사랑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멋있게 꾸려졌다는 소문을 듣고 조국에 왔다.

7월 29일 오전 입소식을 하고 오후에는 호실에 짐을 풀었다. 저녁에 식사하러 식당에 가니 야영생들의 생일상이 차려져있는것이였다.

조국의 야영소에 왔다는 흥분으로 나 자신도 생일을 잊고있었는데 너무도 놀랐다. 그날에 생일이 세명이었는데 두명은 로씨야의 남학생들이였고 한명은 나였다.

집을 떠나 생일을 쇠보기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될것 같았다.

너무도 놀랐고 기쁘기도 하여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리와 함께 온 김경자선생님도 미처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야영소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풍성한 생일상을 차려주었던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찬 생일상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해외에서 온 나의 생일까지 차려주는 조국의 사랑은 저 송도원의 바다처럼 넓고 넓구나.

재중동포소년야영단 야영생 강명림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벗들중의 한사람이다. 지난 시기 여러번 조선을 방문하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세암과 리암을 데리고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에 온것이다.

현제 만아들 세암은 클린초학교 6학년이 다니고있고 벨라사드 리암은 메리스트 세인트 메리스 학교 5학년이 다니고있다. 이번엔 아들들을 데리고 여기에 온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알게 하고싶은 마음에서였다. 서방의 선전과는 달리 얼마나 훌륭한 나라이고 아이들을 왕으로 내세워주는 좋은 나라라는데 대하여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해주고싶었다.

각종 유희오락장들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놀이장들이 다 있다. 아마도 우리 애들의 가슴속에 송도원에서의 야영생활은 일생의 추억으로 아름답게 새겨질것이다.

나를 간호해주었고 값비싼 영양제까지 써주었다. 문득 말에 생각이 났다. 몇년전 차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미처 돈을 가져오지 못하여 수술이 늦다보니 살아날수 없었다. 조선의 무상치료제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를 느꼈다. 지구상 어디에나 아이들은 있다. 아이들은 인류의 희망이고 꿈이며 미래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불행하고 죽어가고 시들어가고있는것인가.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아이들이 불행과 학대의 대상으로 쓰러져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이제 많이들 웃는다. 이젠 야영1각 422호실에 든 장예경학생이 쓴 일기의 한대목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가는 곳마다 동심에 맞는 장식들이 많다. 세계명작화를 그려놓은 그림들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꽃들도 많다. 그중에서도 별 모양장식

## 단상 원수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8월 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보트장에서 세계 여러 나라 야영단들의 보트경기가 진행되었다.

《영차, 영차》 소리를 치며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야영생들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재미가 나는 야영의 낮과 밤을 보내는 기쁨과 활기에 넘쳐있었다.

누가 제일먼저 보트를 몰아가는가. 여러가지 색깔의 구명조끼들을 귀엽게 입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가며 보트를 몰아가는 아이들의 얼굴들에는 승벽심과 함께 동심의 세계에서만 엿보이는 장난기가 만발하였다.

푸른 물결을 헤치며 맨앞에서 내달리던 조선소년야영단의 보트가 란자니아소년야영단의 보트와 부딪치면서 가르르 웃음판을 터치기도 한다.

일마나 행복한 아이들의

의 웃자락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그마한 배를 타고 오고 이어가신 위험천만한 전선시찰의 그 길이 있어 저렇듯 맑고 행복에 넘친 아이들의 웃음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각도 그이께서는 세상에 부림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으시며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 우리 나라의 그 어디서나 더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천만리길을 끝없이 이어가신다.

《야, 우리가 이겼다!》 아이들의 함성에 생각에서 깨어난 나의 시야에 야영소 보트장언덕위에 세워진 구조가 뜨겁게 안겨들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됐다. 유쾌한 첫 하루 야영일과를 마치고 호실에 들어서니 포근한 침대를 노그라진 내 몸을 따뜻이 품어주었다. 솔솔히 잠이 들려는것을 애써 참으며 오늘 하루동안 있었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려고 눈을 떴다. 그런데 나의 눈앞에 신비한 별의 세계가 펼쳐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파이란 하늘에 자그마한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있었다. 너무나 신기하였다. 그래서야 관리원아지미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아이들이 기대문에 밤이 되면 무심중을 탈가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야광벽지를 야영소의 호실마다 붙여주었다는 얘기가

이 제일 많은듯싶다. 야영1각과 2각의 천정에도 별들이 있고 바닥에도 별들로 장식되어있다. 수족관에도 가오리, 떡도미, 줄도미들이 유유히 노니는 별수조가 있고 실내물놀이장의 천정에도 별들이 가득하다.

## 야영소의 별

야영소에 가득한 크고작은 별들, 단순히 건축장식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라다니는 조국의 사랑이 아니라 어려운것을 아이들에게 고운 꿈을 안겨주며 빛나는듯싶다. 야영소의 별들은 예경이만이 아닌 모든 야영생들의 가슴속에 일생의 추억으로, 아름다운 꿈으로 깊이깊이 새겨질것이다.



# 세계 생물권 보 호 구 칠 보 산



내칠보의 내경대

우리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안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칠보산지구에 대한 수년간의 현지답사와 전면적인 생태조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이 일대의 독특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얼마전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간 및 생물권계획 국제조종리사회 제26차회의에서는 칠보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칠보산지구의 독특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구체적으로 해명되고 이 지구가 세계 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됨으로써 나라의 생물다양성보호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게 되었다.

칠보산지구는 지리학적특성과 자연기후, 다종다양한 생물상, 생태관광 등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다른 생물권보호구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시작을 받아 형성되었다. 칠보산일대의 침식물짜기들은 협곡으로서 좌우기슭에 암벽들이 분포되어있고 계곡마다에 크고작은 폭포들이 형성되어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있다.

주봉을 이루는 상매봉(1103m)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에 박달령(761m), 천덕봉(985m), 삼각봉(1030m), 남쪽에 하매봉(1045m), 까치봉(900m), 향로봉(844m) 등 해발높이 1000m안팎의 산들이 솟아있다.

이 봉우리들을 련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수많은 봉우리들과 기암들이 솟아있으며 풍치좋은 릉선과 계곡들이 이루어져있다. 동쪽 해칠보지역은 다른 해안과 달리 바다기슭에 모래밭이 적고 대부분 구간이 절벽해안으로 되어있어 바다 쪽에서 바라보면 매우 아름다운 경경을 이룬다.

내칠보와 외칠보, 해칠보의 특이한 풍경으로 하여 더욱 풍치수려한 칠보산지구는 명소만 하여도 160개소나 된다.

양성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제일 더운 8월 평균기온은 21.2°C이고 제일 추운 1월 평균기온은 -7.8°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800mm로서 7~8월에 60%에 해당하는 비가 내린다. 여름철에는 주로 남동풍이 불며 겨울철에는 주로 북서풍이 분다.

## 지리학적특징과 자연기후

예로부터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어난 풍치로 하여 《함북금강》으로 알려졌으며 산이름도 금, 은, 마노, 진주, 호박, 산호 등 진귀한 7가지 보물에 비하여 지어졌다.

우리 선조들은 칠파라 아름답게 단장되는 칠보산의 경치를 두고 봄이면 백화만발한 《꽃동산》, 여름에는 목욕이 우거진 《목욕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타는 《홍야산》, 겨울에는 흰눈으로 은빛단장한 《설백산》이라 불려왔다.

맑고 푸른 동해바다가에 장엄한 기상으로 하늘높이 솟은 기묘한 봉우리들과 깎

아지른듯 한 절벽들, 기암괴석들과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골짜기들로 일만경치를 이룬 칠보산생물권보호구는 함경북도 명천군에 위치하고있다.

칠보산은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백두대산줄기의 한부분으로서 백두산과 함께 신생대 제3기말~제4기초에 일어난 화산분출암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여러차례 용암들이 류출되고 화산재들이 쌓여 생긴 화산산지이다.

칠보산지구의 독특한 여러 가지 모양의 돌문, 돌굴, 바위단, 기둥, 단층과 협곡, 절벽과 같은 기암괴석들은 오랜 기간의 풍화작용과 물침

침이 풍부하다. 칠보산의 좁고 깊은 계곡을 따라 많은 하천들이 흐른다. 비교적 큰 하천은 보춘천과 포하천이다. 칠보산지역은 서쪽에 높은 함경산줄기가 둘러싸여 있고 동쪽은 지대가 낮아다가 바다에 면하고있어 해

당굴을 비롯한 16종의 특산식물들, 머루, 다래, 잣, 밤, 가래 등 16종의 식용열매들, 60여종의 산나물들을 비롯하여 경제적가치와 학술적의의가 큰 식물들도 많이 유전자 다양성의 중요한 저장고로 되고있다.

칠보산지구는 270여종에 달하는 척추동물(집승류 39종, 새류 192종, 양서류 21종, 내수면생태계의 물고기류 22종)이 서식하고 있다.

곰, 노루, 너구리, 오소리, 산토끼를 비롯하여 30여종의 집승류와 수리부엉이, 티리새, 저리새, 꿩, 꿩새,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들이 있다. 또한 산달, 산양, 수달, 까막딱따구리, 긴꼬리우슴딱새 등 10여종의 위협종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해칠보의

동굴을 비롯한 16종의 특산식물들, 머루, 다래, 잣, 밤, 가래 등 16종의 식용열매들, 60여종의 산나물들을 비롯하여 경제적가치와 학술적의의가 큰 식물들도 많이 유전자 다양성의 중요한 저장고로 되고있다.

칠보산지구는 270여종에 달하는 척추동물(집승류 39종, 새류 192종, 양서류 21종, 내수면생태계의 물고기류 22종)이 서식하고 있다.

곰, 노루, 너구리, 오소리, 산토끼를 비롯하여 30여종의 집승류와 수리부엉이, 티리새, 저리새, 꿩, 꿩새,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들이 있다. 또한 산달, 산양, 수달, 까막딱따구리, 긴꼬리우슴딱새 등 10여종의 위협종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해칠보의

보존야바다에는 명태, 이면수, 게, 문어, 조개, 미역, 해삼, 성게, 섭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이곳에

서 자라는 다시마는 맛이 좋고 풍부한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품위가 높은것으로 인정되고있다.

## 역사유적과 천연기념물

칠보산지구는 우리 선조들의 오랜 문화전통과 반침략투쟁, 슬기로운 지혜와 재능을 보여주는 원시, 고대, 중세유적유물들과 음성과 산성, 무덤, 비, 부도 등 유적유물들도 적지 않다.

명천군 보춘리에서 발굴된 돌도끼, 칼들, 화성군과 어랑군, 화대군에서 나온 돌활촉, 돌창끝, 질그릇들, 어랑군 량걸리 하남마을의 고인돌무덤들은 원시, 고대의 대표적인 유적유물들이다.

명천음성과 재덕산성 등의 산성들과 개실사를 비롯한 사찰들, 새로운 경길을 개척한 정상인의 공적을 기념하여 세운 신도령비 등은 대표

적인 역사유적이다. 통치아름다운 내칠보의 보락산에 자리잡고있는 개실사는 826년 발해때에 세워졌다.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심경당, 음향각, 관음전, 산신각으로 이루어진 개실사는 학술적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대웅전에는 현재 11개의 불상과 8만대장경 6권, 목탁, 초대, 나무조각 등 여러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있다.

칠보산에는 이밖에도 포종소나무, 보춘조개, 해칠보달문, 해칠보출입, 해칠보무지개바위, 로직봉, 금강봉과 금강굴 등 10여점의 국가천연기념물들이 있다.

## 생태관광실현의 유리한 조건

칠보산생물권보호구는 산악생태계, 계곡, 폭포, 울창한 산림 등 다른 지역들에서 볼수 없는 뛰어난 자연경관이 펼쳐져있어 생태관광업발전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칠보에는 크고리바위, 붓바위, 달문을 비롯하여 바다물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해식동굴과 돌문들, 깎아지른듯 한 절벽들의 황홀한 경치를 부감할수 있다.

1766년에 박종이라는 사람이 칠보산을 돌아보고 《맑고 개질한 들에서는 금강산

을 일러야 하고 높고 기발한 점에서는 설악산을 들어야 하며 서리고 겹친 산세로서는 묘향산을 손꼽아야 하지만 깊숙한가운데 기묘한 빛을 갖춘것으로서 칠보산이 으뜸이다.》라고 썼듯이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과 명소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칠보산에서는 오래전부터 관광활동이 진행되어 오고있다.

관광은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관광은 주로 명소들과 역사유적들에 대한 탐관과 해수욕, 동식물



해칠보의 무지개바위

## 우리 민족의 자랑 3대고려의학고전

◆《향약집성방》 1431년부터 1433년 사이에 85권으로 출판한 고려의학림상전서로서 15세기까지에 걸쳐 우리 나라 민족의학이 달성한 성과들이 종합체계화되어있다.

특히 수많은 고려약처방기운에서도 주로 우리 나라에서 나는 약초들로 구성된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약재들의 산지는 물론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밝힌것으로 하여 책임들을 《향약집성방》이라 하였다.

◆《의방유취》 이 책은 두차례에 걸쳐 편찬하였다. 1차는 1443~1445년에 365권을, 2차는 1477년에 266권을 편찬하였다.

고려의학으로서 여기에 15세기까지의 동방의학의 성과들이 집대성되어있다.

◆《동의보감》 당시 명의로 이름났던 허준(1540~1615년)이 오랜 림상경험과 국내외의 수백여인의 의학책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체계로 1596~1610년에 편찬하고 1613년에 출판하였다.

목목 2권, 내경편 4권, 외형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지주편 1권 등 총 25권으로 되어있는 《동의보감》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생활습성과 신체구조에 알맞게 창조하고 발전시킨 치료법들과 처방들이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오랜 기간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리용되었으며 의학백과전서적인 책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 사화 명화 《레성강도》 (4)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이제는 송이가 무엇을 말하고싶어하는지 리녕은 능히 알수 있었다.

그렇다! 레성강은 마땅히 동방례의지국의 자랑일뿐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기도 하다. 천하가 다 아는 좌, 우 벽관정을 놓치면 그것은 벌써 레성강이 아니고 변화한 물우의 도회지와 소나무가 울며있는 그건 또 벽관도가 아니며 송악산을 배경으로 황도를 오가는 외국 사절들을 담지 못하면 그건 벌써 고려의 강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레성강에는 당연히 찬란한 문화의 나라이고 렬의높고 존엄높은 나라 고려를 그대로 담아야 하는것이다.

《송이! 정말 고맙소.》 리녕은 북받치는 걱정을 이길수 없어 송이를 헛껏 꺼안았다.

《그대는 나를 깨우쳐주셨소. 옛날에 어떤 사람은 글한자를 가르쳐주셨대서 그 사람을 평생 스승으로 모셨다는데 난... 난 그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는지...》

《광필이 아버지! 우리 고려를 널리 자랑하여주신다면 소녀는 더 바랄것이 없나이다.》

두사람은 오늘 비로소 서로 헤어져서는 살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

어둑어둑 땅거미가 누리를 덮을적에 리녕과 송이는 미라산을 내렸다.

《송이! 내 오늘을 평생 잊지 않겠소. 이젠... 들어가보소.》

리녕은 몹시 아쉬운 마음에 송이가 들 좌벽관정을 가리켰다.

그런데 화구통을 벗어들던 송이는 그것을 다른 어깨에 옮겨대며 좌벽관정이 아니라 강쪽으로 앞서 걸었다.

《송이! 이리저 말라라 데...》

《호호, 소녀는 오늘부터 며칠간 금가(휴가를 줌)를 받았나이다. 저... 금한일이 없으시다면 소녀와 함께 저의 집에 가셨으면 하나이다.》

리녕은 송이의 깊은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나서 아무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배라리에 올라서니 강안은 그대로 초파일날 밤의 불당 앞이런듯 배전을 맞던 배들

에서 승벽내기로 비치는 등불로 하여 내달같았다. 명멸하는 레성강의 밤세상은 벽관도의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다.

두런두런 울려오는 말소리들에 귀를 강구면 왜말쯤은 가려낼수 있는 리녕이었지만 이 밤은 통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허, 오늘은 전부 귀일은 소리뿐이군.》

《그렇겠지나이다. 대식국(아라비아)장사군들과 천축국(인디아)사람들이 어제 또 왔나이다. 그 사람들이 이쪽에 닿을 내렸으니 그럴만도 하나이다.》

《대식국에서까지? 과연 먼데서 왔군.》

리녕은 갈란하며 허꼬부라진 소리들에 귀를 향하고 움직일념을 안했다.

《광필이가 기다리고있나이다.》

리녕은 송이에게 이끌려 배우에 올랐다.

배 한척에만 올라서면 배전을 잇던 배들의 장관을 다리로 삼아 저 건너 벽관도로 어렵지 않게 가닿을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제 나라들의 향취를 그리는 말소리들이 울려왔다.

한참 걷던 송이가 불쑥 리녕의 팔을 잡으며 《이 배

는 송나라장사군들의 배인데 배꾼들이 마침 시를 읊고있나이다. 소녀가 잠시 통역하라나йка?》 하고 물었다. 리녕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예수에 잠긴듯 한 어떤 사내의 석성한 말소리를 송이는 랑랑한 소리로 류창하게 번지였다.

... 일손을 멈추고 먼길을 생각하다가 외마에 밤에 혼자 자려니 눈물이 비오듯 하네

리녕은 시의 뜻보다도 송이의 청신한 자태에 머리가

송이의 까만눈이 드리났다. 《그런데 저... 우리가 싸우다면 그 어떤 나라의 침략도 막아낼수 있나йка?》

내인이지만 송이는 늘 가슴속에 나라를 안고있다. 《그야 여부가 있겠소. 우린 벌써 수십만이나 되는 강포한 거란군도 호찌게 쳐부섰거든. 우리에게 힘이 있소. 누구나 박달임금께서 물러주시 강토를 지켜 목숨도 두려워 안하지. 또 우린 염초(화약)를 구워내서 불화살을 날리고 오래전에 박원작이라는 개경사람은 고무려시 절의 천군노까지 다시 만들어냈소.》



만 있으면 나라 위한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하시였나이다.》

《고마워, 송이! 이 밤은 참 좋은 밤이야.》

두사람은 이런 말을 주고 받으며 강을 건너고 선창가를 따라서 백련산기슭의 방골돌네로 꺾어들었다.

갈나무들이 우거진 길에 들어서자 리녕은 송이의 손을 잡고 《노를 하나 불러줘.》 하고 말했다.

《아이 이걸 어찌나. 집에 다 왔는데...》

《원 별소릴... 목소리를 작게 하면 필경 가지고...》

《그럼 그 화구통을 인주시와요.》

송이는 리녕의 어깨에서 화구통을 벗겨 메고는 나직이 노래가락을 뽑았다.

... 불빛넘친 금수강산 그림같은데 아침해 맑게 빛나 조선(단군조선)이라 부르는데

송이의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고운 목청에 혀를 차던 리녕은 번쩍 눈앞으로 류성이 흐르는감을 느꼈다.

그렇지, 박달임금이 세우신 조선! 맑은 아침의 나라!

《송이, 난 매일 이른 새벽 저 미라산에 다시 오르겠소. 해돋이순간을 맞이할테요.》

《소녀도 함께 가겠나이다.》

그날 밤 리녕은 송이의 부모님들을 만나뵈었다. ...